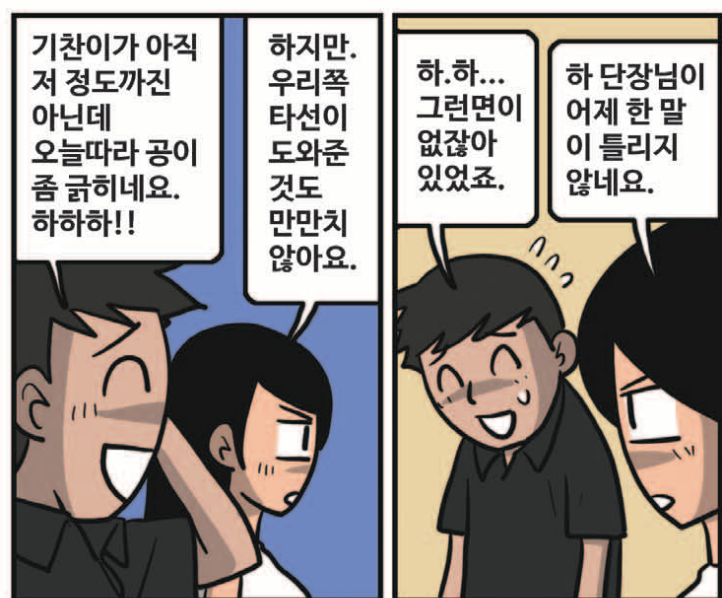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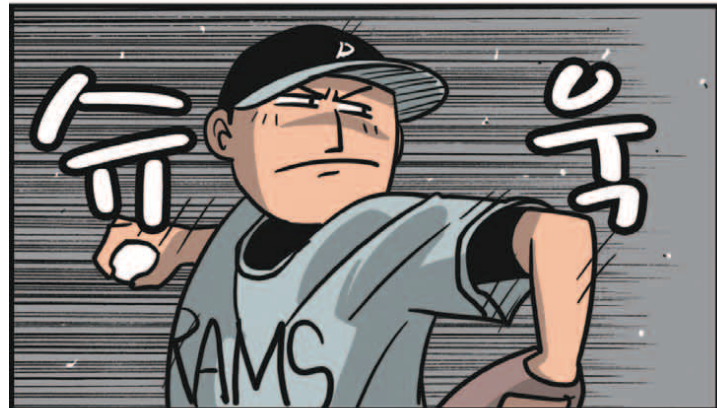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34 >

TEAM	1	2	3	4	5	6	7	8	9	R
램스	3	0	0	0	0					
트로잔스	0	0	0	0	0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전노민·이일화 6년만의 연극무대 복귀작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 7월1일~9월18일 | 서울 대학로 수현재씨어터

20만 관객이 사랑한 창작연극 '민들레 바람되어'가 무대로 돌아온다. 7월1일 서울 대학로 수현재씨어터에서 개막한다. 2008년 초연되어 전회 매진, 객석점유율 115%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작품이다. '살아있는 남편과 죽은 아내의 엇갈린 대화'의 형식이 신선하다. 부부라면, 부모라면 한번쯤 느껴왔을 고민과 갈등을 총괄하게 풀었다. 극중 감초역할을 담당하는 노부부의 맛깔나는 연기도 볼 맛을 더해준다. '민들레 바람되어'는 연기력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배우들의 연기 대결장이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는 남편 역에 전노민과 김민상, 아내 역에 이지화, 이일화, 권진이 캐스팅됐다. 노부부 역은 이한위, 김상규, 황영희 이지현, 강말금 이 맡는다. 이 작품은 특히 남편 '안중기' 역이 중요하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월이 따라 변화해 가는 남자의 모습을 설득력있게 보여줘야 한다. 조재현, 정보석, 안내상, 이광기, 임호, 정웅인 등이 이 역을 거쳐 갔다. 드라마를 통해 중장년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온 전노민은 '추적' 이후 6년 만에 연극무대로 복귀했다. 아내 '오지영' 역의 이일화도 반가운 얼굴이다. tvN '응답하라' 시리즈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한 이일화도 6년 만에 연극무대에 오른다.



크로스 드레서, 일곱남자들의 은밀한 취미

●연극 까사 발렌티나 | 6월21일~9월11일 | 서울 대학로 DCF대명문화공간 2관 라이브웨이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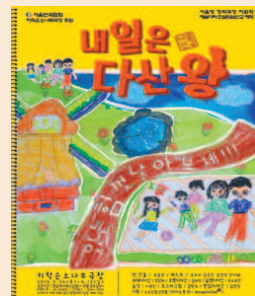
2014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어 이 해 토니어워드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작품이다. 대학로의 연극명가로 자리잡은 김수프로젝트의 18탄이다. 1962년 뉴욕 캣츠킬 산맥에 있는 한 방갈로 '슈발리에 데용'에 모여든 일곱 명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지만 모두 '크로스 드레서(이성의 옷을 입는 사람)'라는 은밀한 취미를 갖고 있다. 이들에게 '슈발리에 데용'은 당당하게 여성의 옷을 입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다. 이들은 모임이 정식 조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의견대립을 벌이게 된다. 뮤지컬 '라카지', '캉키부츠' 등을 통해 크로스 드레서의 모습을 사랑스럽고 유쾌하게 풀어낸 극작가 하비 피어스타인의 신작이다. 연출을 맡은 성종완은 "캐릭터가 무척 매력적인 작품이다. 국내 관객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시대와 기호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희석, 최대훈, 박정복, 한세라, 정연, 임종안, 김대근, 박준후, 장용철 등이 출연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산왕으로 산다는 것

●연극 내일은 다산왕 | 6월12일까지 | 서울 대학로 키작은소나무극장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풍자적이며 비약적인 세계로 꾸민 연극이다. 17구 3자녀 출산을 의무화하는 '자나깨나 국민정부'라는 가상의 세계가 배경이다. 국가 산아촉진정책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조금박 여사의 일대기를 보여준다. 2014년 남산예술센터의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포드득'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갈등과정을 그린 작가 류동민이 이번 작품에서는 직접 연출을 맡았다. 다산왕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주인공 조금박 여사 역은 배우 조두리, 남편 역은 김영성이 연기한다. 김효진, 전지혜가 멀티역으로 무대를 누빈다.



편지를 통해 드러나는 15년전 사건의 진실

●연극 왕복서간 | 7월5일~10월16일 | 서울 대학로 TOM2관

중학교 동창이자 오래된 연인 사이인 준이치와 마리코의 왕복서간을 담은 연극이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남태평양의 오지 섬나라로 자원 봉사 활동을 떠난 준이치와 그를 기다리는 마리코는 오직 편지를 통해서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리코는 그 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혹은 잊으려 애를 썼던 15년 전 중학교 시절의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심리를 집요하게 묘사하는 일본의 추리소설가 미나토 가나에의 소설 '왕복서간' 3편 중 '십오 년 후의 보충수업'이 이 연극의 원작이다. 준이치 역은 박시범, 강정우, 손윤동이 맡는다. 마리코 역에는 이지혜, 홍지희가 캐스팅됐다.



뉴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와이즈교육, '뉴싱킹트레인' 보급



주간독서논술신문 와이즈윌러리의 전국 흡수율을 운영 중인 와이즈교육이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켜 창의력과 종합사고력을 키워주는 두뇌훈련 프로그램 '싱킹트레인'을 업그레이드한 '뉴싱킹트레인'(사진) 개발을 완료하고 보급을 시작했다. 기존의 목각교구세트를 자석 내장 교구세트로 대체한 '뉴싱킹트레인'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높임으로써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더욱 증진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목각에 비해 부품의 정밀정돈과 이동

이 쉽다. 와이즈교육은 최근 두 달 내 '싱킹트레인' 가입 고객은 무상 교체, 그 이전의 경우는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유상교체를 진행 중이다. 뉴싱킹트레인은 아이들의 두뇌 각 부위를 균형 있게 발달시킴으로써 언어(한글), 수리 능력과 함께 인지, 추상, 추리, 공간감각, 지각속도, 구성력, 기억력, 협응력, 논리력 등 종합사고력을 키우도록 설계된 교구세트이다. 특히 체계적인 한글 깨치기, 어휘력, 표현력 향상에 중점을 둔 언어영역과 사적연산의 기본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수리영역을 초등학교 준비학습에 특화된 것이 강점이다. 각 활동 별로 자세한 가이드북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가 지도하기 쉽도록 했다.

롯데마트, 투명거래위 2기 활동 시작

롯데마트는 31일부터 '투명거래위원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가공식품과 즉석조리식품 등 16개 파트너사가 대상이다. 투명거래위원회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 개발단계

부터 물류, 마케팅까지 유통 전 단계에 걸친 고충을 듣고 제도 개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명함 교환이나 명패 설치 등을 하지 않고 상호명이나 성명을 비공개로 한다. 지난 2월 시작한 지난 달 운영을 마친 1기에서는 신선식품부문 18개 파트너사가 참석해 산지 실태, 매장운영 등 다양한 주제로 소신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블랙야크, 페루행 도전자 모집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안데스의 광활한 자연과 잉카인의 신비로운 문명을 체험하는 '세.문.밖.떠나자! 글로벌 야크 크루'의 페루행 도전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총 6명은 9월25일부터 10월3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페루 여행을 떠난다. 수도 리마의 신시가지 지역인 미라플레스와 최근 주목받는 지역인 바랑코 투어를 시작으로 안데스산맥 고고학 유적지 투어, 라마트 레킹, 잉카 트레킹, 마추픽추 하이킹, 쿠스코 시

티투어 등에 참여한다. 5월27일부터 6월26일까지 블랙야크 아웃도어 정보 포털 마운틴북(www.mountainbook.co.kr) 회원 가입 후 미션에 도전하면 된다. 미션은 전국 100대 명산에 올라 인증사진을 찍는 것으로 블랙야크 마운틴북의 대표 챌린지 프로그램인 '명산100'에 참여하고 명산 2곳을 선정해 정상 등정에 도전하면 된다.

LGU+, 모바일 인프라 혁신상 수상

LG유플러스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GTB(Global Telecoms Busines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세계 최초 VoLTE(Voice over LTE) 로밍 상용화로 모바일 인프라 혁신상(사진)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VoLTE 로밍은 해외에서도 LTE망을 통해 국내외 동일한 수준의 고음질 음성 통화와 고화질 영상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VoLTE 로밍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빠른 통화 연결과 고품질 통화 음질을 즐길 수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 청년창업 지원

신세계그룹이 9월 오픈 예정인 신개념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에 청년 창업 매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스타필드 하남 3층에 203㎡ 규모로 꾸미게 된다. 입점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테리어 지원 및 입점 수수료 혜택도 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진흥청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선발과정을 통해 17명을 최종 선발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총 1조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이다. 글로벌 쇼핑플 개발 및 운영 기업인 미국 터브먼의 자회사 터브먼 아시아가 49%의 지분을 투자하고, 글로벌 쇼핑플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 신세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